

「排過」라는 左右銘



박 노 경
언론인

뉴스의 생명은, 오늘과 같이 보도매체가 발달하여 온갖 국내외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사회에서는 매우 짧다. 어제의 큰 뉴스는 오늘의 큰 뉴스에 의해 잡아 먹히고 어제의 큰 뉴스를 잡아 먹은 오늘의 큰 뉴스도 내일이면 다시 다른 새로운 뉴스에 의하여 잡아 먹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 보통사람들은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뉴스의 新陳代謝현상에 눈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들이 미결상태로 혹은 악화되면서 사람들의 문제의식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사람이 있었거니와, 오늘이 「미래의 기초」라는 바른 시각에서 보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전반적으로 아직 완전 탈빈을 못했는데도 부자나라 국민생활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사실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분수이상의 사치와 낭비를 악덕인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경시하고 있는 풍조이다.

비록 국제 석유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기름 한방울 안나는 외채국에서 자동차 홍수가 나고 전 세집에 살면서도 빛을 내서 자가용 승용차부터 사서 굴리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전체 국민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사치해지고 있는 식생활과 턱없이 호화로와지고 있는 가구와 의복, 고급 장신구 등의 유행도 납득이 안된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1회용 상품의 범람으로 귀

중한 자원이 공공연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종이 기저귀와 종이컵, 절반도 안쓰고 버리는 치약, 샴푸, 그리고 기름만 닳으면 버려야 하는 가스 라이터등 빛을 받고 이렇게들 낭비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자원난 속에서 이래도 죄가 안될까.

『지구는, 단순히 그날 그날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원을 잠식하고 있는 가난한 다수와 물자를 끝없이 낭비하며 흥청거리는 소수에 의해 약탈 당하고 황폐화되고 있다. 前者는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후자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장의 한계」로 유명한 「로마 클럽」의 창설자요, 그 초대 회장이었던 아우렐리오·체케이박사가 「미래를 위한 100페이지」에 남긴 인류 양심에의 고발이다.

이 절실한 선각자의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먼저 국가정책 전반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와 동시에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다수」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소수」를 깨닫게 하는 효과적인 계몽운동등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 같다.

또 한가지 모든 사람들이 「排過」를 좌우명으로 삼게 했으면 한다. 「過」자 붙은 행위를 생활에서 불어내자는 말이다. 「과욕」과 「과소비」를 삼가하면 가계와 나라 경제가 튼튼해질 것이며, 「과식」「과취」「過勞」「과려」를 물리치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없는 인구과밀의 국토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天助自助의 길이란 것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